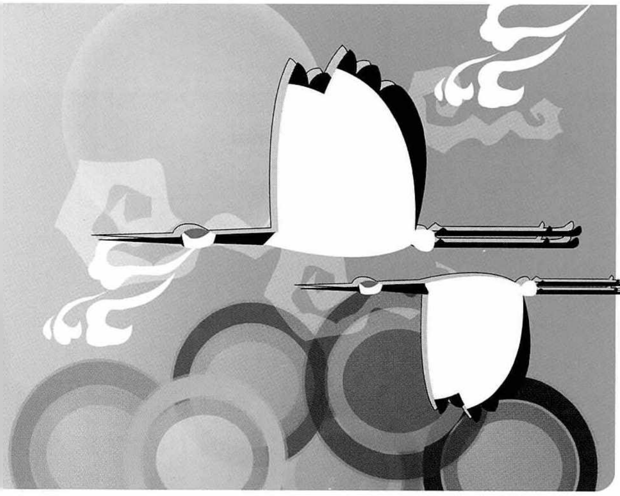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며

글 **최강원** 본회 회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다시 丁亥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글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에이즈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난해에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500만의 새로운 감염인을 추가하였으며 아직도 4천만이 넘는 감염인들이 치유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염인들은 적절한 항바이러스 요법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방법도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구권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의 급속한 확산 역시 우려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우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각 나라와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절망의 땅에서도 새로운 감염인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방과 치료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인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자는 범세계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는 정부의 도움으로 감염인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감염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 경제적 재활과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앞날에는 엄청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정과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 으레 따라다니기 마련인 갈등과 불신도 우리가 극복해야할 주요 장애물입니다.

나는 이러운 여건 아래서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예방협회의 직원은 물론, 힘든 나날을 에이즈와의 사투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감염인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참을성 있게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는 희망의 싹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노력한다면 정해년은 글자 그대로 희망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